

SIBA'95를 국제적인 전시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제7회 Siba 준비하는
KOEX 전시과 임홍섭 과장

국내 제과업계 최대의 행사라 하면 83년 첫 실시되어 올해로 7살이 되는 '서울국제빵·과자전(일명 Siba)'을 꼽을 수 있다.

"행사일은 총8일입니다.10월 27일부터 3일간 참가업체의 부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행사일은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입니다.

"부스철거일 하루를 포함한 8일간

의 행사를 위해 벌써부터 동분서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국종합전시장 전시과 임홍섭 과장.

"올해 Siba는 참가업체나 참관객 모두 30%가량 신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15개 업체가 참가신청을 마친 상태고, 서울국제식품전이 끝나는 4월 말부터 신청업체가 급격히 늘 것 같습니다. 롯데제과와 같은 과자양산업체들과 패스트푸드, 피자, 햄버거 등 외식업분야 관련업체들로부터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이런 업체들의 대거 참가가 예상됩니다."

관련 전문지나 경제일간지에 참가안내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했고, 매체를 통한 홍보는 대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곧이어 Siba개최를 알리는 포스터가 15,000여부 제작돼 대회를 주최하는 대한제과협회를 통해 전국 8,500여 회원업소와 제과관련업체, 유관단체에 일제 배포한다는 홍보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올해 대회의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은 전시장의 배치와 행사일정 중에 진행될 부대행사. 전시장을 들어서면 참가업체들의 부스가 설치된 산업전시장을 먼저 볼 수 있고, 산업전시장을 빠져나가면서 품평대회가 열리는 공간을 연결시켜 참관객의 관람동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며, 각 부문의 일관성 있는 관람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부대행사는 지난 6회 대회에 큰 인기를 얻었던 '엄마와 함께 예쁜 케이크 만들기'와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리빵 만들기 강습회'를 실시해 국민적인 빵식의 대중화와 빵소비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제과기술인을 위한 기술세미나, 경영자들을 위한 소점포 경영방식 세미나도 기획 중. 일본이나 유럽에서 초청된 강사들의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장 규모도 93년 6회 대회에 비해 47%가 커진 7,776㎡로 정해졌다. 참가업체나 참관객의 수적증가는 물론이고 참가국과 참가업종까지 다양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올해를 모름지기 Siba가 국제전시회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분수령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업과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KOEX 전시과 직원들의 구슬땀이 11월에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생겨난다. 